

<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니 자기 생각에 하나님과 주님의 생각만 오도록 하나님과 주님 생각의 그릇이 되어 주어야 한다.
2. 인간의 생각과 동물의 생각이 차이가 있고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이가 있고 다르다.
3. 어떤 것은 육신이 행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는 일도 있다. 생각으로만 하는 의의 공적도 있다. 온종일 하나님과 주님만 사랑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자. 육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와 같은 생각만 했어도 그 의가 해처럼 빛나 영혼까지 미쳐 그 생각을 상실하지 않으면 그 의가 영원히 간다. 알지 못하면 있는 것도 얻지 못하고 썩어 버리게 한다.
4. 무엇을 하든지 온종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 받으며 살아라.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녹슬고 썩어 그 육의 삶도 썩고 있고, 영적으로 보면 영도 썩고 있다.